# 신안 해상풍력단지 전남형 일자리 모델로 조성

###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 실현 2029년까지 48조 5000억 투입
### 노·사·민·지자체 참여…40개사 유치 일자리 4000개 창출

전남도가 신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상시 일자리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에 따라 신안에 노·사·민·지자체를 참여시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상시 일자리 4000여개에 간접 일자리까지 합쳐 11만7506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며, 신안지역을 해상풍력산업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9년까지 민간투자를 포함 총 48조 5000억원을 들여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품설비 제조업소 40개사를 유치해 국산 장비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설 방침이다.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지역은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최적지로 평가받았지만 송전선로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관심을 보이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계 부처에서 제도 정비 및 기반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정부, 신안군, 한전 등 이해 당사자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사 컨소시엄 및 신안 해상풍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송전선로 계통 연계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기반시설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노사 및 지역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노·사·민·지자체 상생 일자리 선포식을 개최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에 대한 공감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최근 전남도가 선포한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뿐만 아니라 국내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광주시민대회'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광주서 '아베정권 경제보복 규탄' 시민대회

### 시민단체 회원 1000여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 주장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우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두고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대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11일 '경제침탈 아베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광주 시민대회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각 분야 시민단체 회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시민대회가 열렸다.

시민대회가 열리는 장소 한쪽에는 6m 높이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총칼 대신 경제 무기를 앞세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한국 정부에 굴복을 강요하는 제2의 침략 만행"이라며 "아베 규탄 시민대회와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 정치·군사적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언자로 나온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역시 "거짓말에 속아 미쓰비시에 끌려갔는데 아베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힘을 모아 아베의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도 "더는 대한민국이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신보 이사장 후보 변정섭씨 다음달 인사청문회 개최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 후보에 변정섭(60) 전 광주은행 부행장이 낙점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지난 7일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1순위인 변 전 부행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시는 신원조회를 하고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9월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변 후보자는 1987년 광주은행에 입사해 2010년 부행장으로 승진했으며, 광은비즈니스 대표이사, 해원MSC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형호 기자 khh@

# '인간 승리' 감동의 드라마 쓴다

GWANGJU 2019 Fina WORLD MASTERS CHAMPIONSHIPS

### 최고령자·장애인 등 오늘부터 경영 경기 출전

지난 5일 시작된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전체 참가자의 75%를 차지하는 경영 경기가 1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세계 각국에서 3000여명의 동호회원들이 참가하는 경영 경기에서는 또 어떤 인간승리의 드라마가 쓰여질 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번 대회에서 최고령자인 아마노 토시코(93·멕시코클럽) 선수가 13일부터 경기에 출전한다. 토시코는 13일 자유형 100m를 시작으로 자유형 200m, 50m, 배영 100m, 50m 등 5일 동안 총 5개 종목에 출전한다.

남자 최고령인 테네프 탄초(91·불가리아)도 자유형과 계영, 배영 등 경영 8개 종목과 1m·3m 스프링보드 다이빙 3개 종목 등 무려 11개 종목에 출전해 노익장을 과시한다.

한국 출전선수 가운데 최고령인 조은영(여·81)씨는 15일 자유형 50m를 시작으로 모두 7개 종목에 참가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국 남자 최고령인 조용란(77)씨도 17일과 18일 200m 및 50m 배영에 도전한다.

병마를 이겨내고 37년만에 풀(pool)로 되돌아오는 70년대 한국 여자수영의 간판 최연숙(60)씨도 12일 자유형 800m를 시작으로, 자유형 5개 종목에 출전한다. 최씨는 70년대 중후반 무려 32차례나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신기록 제조기로 이름을 날렸다. 조기은퇴와 결혼, 투병 등으로 37년간 물을 떠나 있었던 그녀는 이번 대회에서는 800m 완주를 목표로 두고 있다.

또 다른 인간승리에 도전하는 이동현(29)씨도 13일 자유형 100m, 14일 배영 50m, 15일 배영 100m에 출전한다. 자폐장애 1급인 이씨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당당히 그리고 즐겁게 레이스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들 외에도 각국에서 많은 사연을 가진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할 것으로 보여 광주마스터즈수영대회는 세계인들을 웃기고 울리는 감동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수영 동호인 건강 챙기고 우정 나누세요"

### 도린 티보즈 마스터즈위원장

도린 티보즈(Doreen Tiborcz·사진) 국제수영연맹(FINA) 마스터즈위원장은 11일 "지구촌의 많은 수영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만나 건강을 챙기고, 함께 어울리며 우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마스터즈대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광주를 찾은 도린 티보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터즈대회의 최우선 가치로 '건강'과 '우정'을 꼽았다.

도린 티보즈 위원장은 "참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대회 특성상 비용 때문에 참가하지 못한 동호인들이 있는 게 아쉽다"면서 "이 때문에 저개발 국가들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골고루 참여해 진정한 지구촌 클럽회원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터즈위원회와 국제수영연맹은 수영 보급 및 활동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2차례씩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참가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특히 "연맹과 위원회의 이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는 튀니지 등 아프리카 7개 국가를 추가로 만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린 티보즈 위원장은 이번 광주대회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그는 "선수권대회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클럽회원들이 무척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면서 "운영 또한 전혀 나무랄 곳이 없고, 남은 기간에도 운영이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여러 곳을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광주는 깨끗한 도시, 좋은 도시, 친절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시간이 나면 사찰 등 광주 곳곳을 더 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